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공모과제 제안요청 공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 (공모방법) : 아래 주제 및 연구내용을 참조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 구분 | 주제 | 주요 연구내용* |
|------|-------------------------------------|---------------------------------------------------------------------------------------------------------------------------------------------------------------------------------------------------------------------------------------------------------------------------------------------------------------------------------------------------------|
| 주제 1 | 인문학과 지역 거점 구축의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각 지역에 뿌리내린 지식을 생산하는 거점, 생활공동체와 동떨어진 학문공동체로서의 상아탑 아닌 ‘생활형 학문공동체’ 구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과의 수직적 관계망이 아니라 이웃나라와 전 세계의 유사한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식 생산의 체제와 방법론을 새롭게 구축 |
| 주제 2 | 국내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선진국 한국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학(인문학의 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외국학) 연구의 정립 <input type="checkbox"/> 기존의 아시아 연구와 유럽연구, 북미지역 연구, 아프리카 연구에 대해 다각도로 현황 분석 및 한국만의 독특하고 참신하고 선진적인 지역학 구상 |
| 주제 3 | 여성 및 소수자 인문사회 연구자 실태조사 및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학문 선진국들에서 여성 및 소수자 인문사회 연구자들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사업과 비교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 위에서 한국의 여성 및 소수자 연구자들에 걸맞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모색 |
| 주제 4 | 인문사회계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연구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바탕으로 무엇을 인문사회분야 연구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input type="checkbox"/>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인력 재생산의 위기 극복과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만이 아니라 대학원대학교 등 인문사회 연구자가 재직하거나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도 포괄하여 실태 파악 등 |
| 주제5 | 한국 인문 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과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핵심적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쉽게 접근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영어를 포함한 세계 주요 언어로 제공하는 사업 구상 필요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큰 구도를 구상하는 동시에 소규모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적 관심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 제시 |

* 주요 연구내용은 <붙임1.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과제 공모 취지문> 참조

- (선정규모) : 전체 5개 과제 내외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2. 11월까지(8개월)
- (지원규모) : 1개과제당 50백만원 이내(간접비 포함)

2. 공모 내용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박사급 직원
 - 학회·기관 등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 예·체능계열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장(대학은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학제 간 융합연구 및 협동연구 장려(인문학과 타 학문분야간의 협업 장려)
 - ※ 관련 근거 :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규정 제9조(공모과제 신청)
- (과제 공고) '22. 2. 3.(목) 예정
- (과제 접수기간) '22. 2. 24.(목). ~ 3. 3.(목).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d1160@nrc.re.kr)
- (제출서류) :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공모과제 신청서(양식)<붙임2> 1부
(연구계획서 및 예산서 포함)
 - ※ 유의사항 : 예산서 작성 시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50% 이내 편성 등
- (심사방법) :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함(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최종선정) : '22. 3. 17.(목)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연구기획본부 협동연구부
(Tel : 044-211-1161, E-mail : hd1160@nrc.re.kr)
 - ※ 자세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http://www.nrc.re.kr>) 및 국가정책연구포털(<http://www.nkis.re.kr>) 참조

2022.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붙임 1.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과제 공모 취지문
2. 2022년도 인문학 정책연구 공모과제 신청서(양식). 끝.

① 인문학과 지역 거점 구축의 중심

인문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방의 위기도 마찬가지이며, 대학 또한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대학의 인문학은 지방과 대학과 인문학이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된 모순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첩된 위기는 혁신과 쇄신을 향한 도전과 모험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 10대 후반의 인재를 입시 성적에 기초하여 선발하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진로를 보장해주던 산업문명시대의 대학 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100세 인생, 취업과 창업과 재취업과 재창업의 연쇄가 거듭될 것인바, 대학은 끊임없이 새로 배우고 다시 배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 20대 초중반에 방점을 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전연령을 망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특히 지방대학의 인문학과 연구자들은 위기를 극복할 창의적 실험을 해볼 만하다. 각 지역에 뿌리내린 지식을 생산하는 거점, 생활공동체와 동떨어진 학문공동체로서의 상아탑 아닌 ‘생활형 학문공동체’를 고민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과의 수직적 관계망이 아니라 이웃나라와 전 세계의 유사한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식 생산의 체제와 방법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 지구적 연결망이라는 지평 속에서 지역과 지방마다 고유의 인문학이 창발할수록 한국 인문학의 쇄신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아울러 그렇게 지역에 특화된 지식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역 대학을 통해 도시와 산업, 학문과 문화가 공진화하는 ‘미래형 강소도시’ 모델의 허브가 탄생할 수 있으며, 최근 ‘대학도시법’이 통과되는 등 3중의 위기를 타개할 현실적 노력은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② 국내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1년 7월 3일 UNCTAD가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한 일에서 드러나듯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그러나 한

국의 인문학은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지역학으로서의 인문학의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한국이라는 주체가 지금의 세계 전체를 보는 관점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규정이 있고 그 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있어야 선진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역할 모색은 소위 4대강국 외에도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인문학의 종합적 인식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또 이 위에서 학술강국의 면모를 갖추으로써 자신의 민주주의 수준과 문화 강국에 어울리는 위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객관적 자기인식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요컨대 선진국 한국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학(인문학의 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외국학) 연구의 정립과 그에 걸맞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국내의 한국학 지원과 쌍을 이루는 외국학, 지역학 연구 지원이 아시아의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흐름 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아시아 연구와 유럽연구, 북미지역 연구, 아프리카 연구에 대해 다각도로 현황 분석을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 보여준 지역 연구와는 다른 우리 한국만의 독특하고 참신하고 선진적인 지역학을 구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기존의 4대 강국에 대한 지역연구가 신남방과 신북방 연구의 내실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조직상으로는 하버드의 '옌칭 연구소'를 벤치마킹하는 지역학 연구원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학 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의 관련 지원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

③ 여성 및 소수자 인문사회 연구자 실태조사 및 과제

한국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해감에 따라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에 이어 대학원 진학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률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형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여성 연구자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수 서열구조 상 비정규직 교수연구자의 여성화, 조교수의 여성화, 여성 교수연구자의 경력단절 문제 등

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태를 입증할 객관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연구자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이들이 자신의 학문적 역량 소진을 막으면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절박하다. 특히 학문 선진국들에서 여성 및 소수자 인문사회 연구자들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사업과 비교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 위에서 한국의 여성 및 소수자 연구자들에 걸맞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현재 전국 대학에서 벌어지는 학과 통폐합 속에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겪는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한 위기는 학문후속세대에게 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이며,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유능한 연구자 집단의 지속적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연구자들과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편수, 인용지수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연구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바탕으로 무엇을 인문사회분야 연구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지 깊이 논의해야 하며, 동시에 대학원부터 시작하여 박사과정 이후까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인력 재생산의 위기 극복과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만이 아니라 대학원대학교 등 인문사회 연구자가 재직하거나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도 포괄하여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⑤ 한국 인문 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과 방안

유형·무형의 한국 전통문화에는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가 될 문화유산이 많다. 한국의 핵심적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쉽게 접근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영어를 포함한 세계 주요 언어로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을 구상할만하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은 막대한 국고를 들여 여러 번 진행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성과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았다. 기존 사업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콘텐츠 구축 대상의 규모가 너무 크고 디테일이 부족하여 일반인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고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제 그 경험들을 자산 삼아 본격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외의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모두 관심을 가질 주제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큰 구도를 구상하는 동시에 소규모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적 관심과 활용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 당연히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협력하여 학문적 깊이와 첨단 기술이 잘 융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의 철학사상은 세계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인데 그 핵심은 <성학십도>라는 그림에 담겨있다. <성학십도>를 멀티미디어와 애니메이션, 단계별 해설로 구성하여 국어와 주요 외국어로 제공한다면 국내 시민 교육은 물론 한국의 철학사상을 세계화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II. 연구계획서 요약

| | |
|----------|--------|
| 연구과제명 | (국·한문) |
| | (영문) |
| 연구 계획 요약 | |
| Key Word | |

※ 「연구계획서 세부내용」은 신청서류 작성 요령에 따라 별도 작성

III. 연구계획서

1.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소속 및 직급)
- 공동연구책임자 : ○○○(소속 및 직급)

2. 연구 배경 · 필요성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
-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구 분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주요 선행 연구 | 1 | | | |
| | 2 | | | |
| | 3 | | | |
| 본 연구 | | | | |

4. 주요 연구내용

○

-

-

-

○

-

-

-

○

-

-

-

5. 연구추진방법

○

-

-

-

○

-

-

-

○

-

-

-

6. 연구추진일정

- 주요 연구 일정(예시)

| 연구 내용 | 2022년 | | | | | | | |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각종 문헌자료 수집 | | | | | | | | |
| - 정책별 대상집단관련 용어사용실태 분석 | | | | | | | | |
| - 1차 자문회의 | | | | | | | | |
| - 중산층 및 서민에 대한 인식조사 | | | | | | | | |
| - 주요 용어별 개념규정 | | |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각 개념별 대상자 집단의 추정 등 통계분석 | | | | | | | | |
| - 2차 자문회의 | | | | | | | | |
| - 보고서 발간 | | | | | | | | |

7. 기대효과

-
-
-
-

8. 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연구기관 예상 역할분담 및 참여비중

| 연구기관 및 연구진 | 연구 내용 | 참여 비중(%) |
|------------|-------|----------|
| 미정 | 미정 | 미정 |
| - | - | - |

9. 연구기간 : 2022. 00. 00. ~ 2022. 00. 00. (8개월)

10. 연구예산 : 00,000천원

○ 연구비 산정내역서

| 비 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구성비 (%) |
|---------------|-------|------|---------|
| ○ 인 건 비 | | | |
| ○ 경비 | | | |
| - 사업인건비 | | | |
| - 공공요금 | | | |
| - 수용비 | | | |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 |
| - 여비 | | | |
| - 연구정보활동비 | | | |
| - 전문가활용비 | | | |
| - 회의비 | | | |
| - 외부용역비 | | | |
| ○ 간접비 | | | |
| ○ 부가가치세 | | | |

※ 하단 [별표] 연구비 항목별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IV.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 이력서

| | | | | | |
|---------|-------|-------|-----|-----|------|
| 소속 / 직위 | | | | | |
| 성 명 | (한글) | (한자) | | | |
| 연락처 | 연구실 : | 핸드폰 : | | | |
| E-mail | | | | | |
| 주 소 |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근무 |
| | - | | | | |
| | - | | | | |

○ 연구실적 총괄 (최근 3년간)

| 연구논문 발표 실적 | | | | 저 서 및 번 역 물 | 2021년도 수행중인 연구과제 | 비 고 |
|------------|-----------|-----------|-----|----------------|------------------------|-----|
| 국제 학술지 | 국내 학회지 | 기타 학술지 | 합 계 | | | |
| | | | | | | |

2. 공동연구자

○ 이력서

| | | | | | |
|---------|-------|-------|-----|-----|------|
| 소속 / 직위 | | | | | |
| 성 명 | (한글) | (한자) | | | |
| 연락처 | 연구실 : | 핸드폰 : | | | |
| E-mail | | | | | |
| 주 소 |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근무 |
| | - | | | | 파견근무 |
| | - | | | | |

○ 연구실적 총괄 (최근 3년간)

| 연구논문 발표 실적 | | | | 저 서 및 번 역 물 | 2021년도 수행중인 연구과제 | 비 고 |
|------------|-----------|-----------|-----|----------------|------------------------|-----|
| 국제 학술지 | 국내 학회지 | 기타 학술지 | 합 계 | | | |
| | | | | | | |

연구비 항목별 계상기준(제15조 관련)

| 비 목 | 계 상 기 준 |
|---------------|----------------------------------------------------------------------------------------------------------------|
| ○ 인건비 | · 연구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의 인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해당년도 학술용역 인건비단가 기준 적용 |
| ○ 경비 | |
| - 사업인건비 | ·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특성과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한 비정규직 인건비 |
| - 공공요금 | · 우편 및 통신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
| - 수용비 | · 연구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 자산가치가 있는 H/W, S/W 구입비는 계상 불가 |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연구와 관련된 시설(행사장, 회의장 등) 및 장비(전산장비 등) 임차 경비 |
| - 여비 |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 - 연구정보 활동비 | ·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사업과 관련된 문헌 등 자료 구입비 등) |
| - 전문가 활용비 | · 외부전문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수수료 -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례금 상한액 기준 준수 |
| - 회의비 | · 연구 관련 회의개최 경비(식대 및 회의준비비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한액 기준 준수 |
| - 외부용역비 | · 융복합연구의 수행이나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협동연구기관에서 위탁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협동연구비 (협동연구비에 대해서도 항목별 계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 ○ 일반관리비 | · 인건비, 경비 합계의 6% 이내 |
| ○ 부가가치세 | · 공급가액(직접비 + 간접비)의 10% |